

○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10.60원 상승한 1,307.80원에 마감

19일 환율은 전일대비 10.60원 상승한 1,307.8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5.30원 상승한 1,302.50원에 개장했다. 간밤 연준 위원의 시장 조기 금리인하 부인과 위안화 약세 영향에 상승 출발한 환율은 개장 이후 1,300원대 초반에서 등락했다. 이후 환율은 1,300원대 중반으로 상승폭을 확대하였다. 오후 장 초반 환율은 BOJ의 환율을 소화하며 상승 폭 일부를 축소하며 1,307.80원에 마감했다. 장중 변동 폭은 9.2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12.40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302.50	1309.00	1299.80	1307.80	1304.7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907.60	917.72	902.17	908.88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416.44	1436.89	1415.76	1435.73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9	-5.67	-12.21	-23.77
결제환율(수입)	-0.47	-4.72	-10.62	-20.92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연준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 속 달러 약세에...1,300원대 초반 중심 등락 예상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3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07.80) 대비 6.80원 하락한 1,298.7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달러지수 하락 등을 반영하여 하락이 예상된다. 최근 일부 연준 위원은 시장의 조기 금리인하 전망에 대해 일축했으나 시장은 이러한 위원들의 발언과 달리 연준이 내년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기대하며 미국 달러를 매도했다. 간밤에도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연준이 내년에 2회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며 긴축 스탠스를 급하게 되돌릴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달러 약세는 역외 매도 심리를 자극하여 금일 환율 하락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간밤 뉴욕증시도 위

험선호 심리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금일 국내 주가도 상승이 예상되면서 환율 하락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급 상 연말 수출업체 네고물량 유입도 금일 환율 하락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입업체 결제수요 등은 하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295.00 ~ 1306.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913.28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6.80원 ↓
	■ 美 다우지수 : 37557.92, +251.9p(+0.68%)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87.92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87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